

#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명
------	------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4.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5.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어떤 상태를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능의 차이와 같은 가상적인 기준을 배격하고자 한다면, 지성, 도덕적 인격, 합리성 등의 사실적인 기준도 평등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받을 이익에 대한 고려 또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평등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사실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파당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그 판단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익을 이익 그 자체로 고려해야지, 나의 이익이나 부자의 이익, IQ가 100 이상인 사람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이익에 대한 고려를 평등하게 하라는 원칙이다.

도덕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의 행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만일 어떤 행위로 인해 X와 Y라는 사람 둘만이 영향을 받는 상황일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X가 잃게 될 것이 Y가 얻게 될 것보다 더 많다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혹 내가 X보다는 Y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지라도,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익은 그것이 누구의 이익이든지 상관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익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 이유는 단순히 고통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X가 당하는 고통이 Y가 당하는 고통보다 덜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X의 고통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X의 고통이 Y의 고통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 이 원칙은 X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비중을 둘 것이지만 말이다. 이 원칙은 양쪽으로 기울어지는 저울처럼 작동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측정한다. 제대로 된 저울은 이익이 보다 큰 쪽으로, 또 비슷한 이익들이라면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측정하는 이익이 누구의 이익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 멕시코시티의 커다란 시장 그늘진 한쪽 구석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양파 스무 줄을 펼쳐 놓고 팔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던 한 신사가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라오.” 노인이 말했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라오.”

“세 줄은요?”

“30센트라오.”

그러자 신사가 좀 불쾌한 듯 물었다.

“별로 깎아 주시는 게 없군요. 25센트 어떻습니까?”

노인은 거절했다. “안 되오.”

화가 난 신사는 “스무 줄 전부 다 사면 얼마입니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노인은 아주 단호하게

“스무 줄 전부를 당신에게 팔 수는 없소.”하고 대답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고. 복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고.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를 파는 거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오.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오.”

[다] 사람 1, 2가 있다고 하자. 이때 사람 1은 2보다 약간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석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1보다 생활을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둘 중 누가 더 가난한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1이 더 가난한가, 아니면 역량이 좀 더 제한되기 때문에 2가 더 가난한가.

이런 질문은 순전히 의미론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우리는 용어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누구를 더 가난하다고 부르는가는 조금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빈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빈곤을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질적인 쟁점을 갖게 된다. 빈곤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이 개념의 본질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빈곤을 규정할 수 없다.

소득의 박탈과 역량의 박탈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에 주목하면 후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연관 관계는 그리 탄탄하지 않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두 변수 집합의 한정된 일치정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소득의 빈곤에만 집중하지 않고 역량의 박탈이라는 더 포괄적인 생각으로 전환한다면, 소득 위주의 통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초 정보만 가지고도 삶과 자유의 빈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소득과 부의 역할은 다른 영향 요인들과 함께 중요한 것이지만 성공과 박탈이라는 더 크고 충실한 전체 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라]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어진 사람이 묘당에서 도모하고 조정에서 논의하며 신의를 지켜 절개에 죽는 것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높은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은 다 부귀로 귀착된다. 청렴한 벼슬아치도 시간이 오래되면 더욱 부유해지고, 폭리를 취하지 않는 장사꾼도 마침내 부유해진다. 부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건장한 병사가 전쟁에서 성을 공격할 때 먼저 오르고 적진을 점령하여 적군을 물리치며, 적장을 베고 깃발을 빼앗으며,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탕화(湯火)의 어려움도 피하지 않는 것은 큰 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또 마을의 젊은이들이 강도질을 일삼고 사람을 때려죽인 뒤 묻어 버리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사악한 짓을 하고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훔치고 돈을 위조하며, 협객인 체하면서 같은 패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고, 세상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내쫓는 등 법과 금령을 피하지 않고 말을 달리듯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데 이도 사실 모두 재물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중략) 한가하게 노니는 공자들이 관과 칼을 장식하고 수레와 말을 줄지어 따르게 하는 것은 부귀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주살로 고기를 잡고 활을 쏘아 사냥하면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서리와 눈을 무릅쓰며 동굴과 깊은 골짜기를 뛰어다니고 맹수의 위험을 피하지 않음도 맛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다. 노름, 경마, 닭싸움, 개싸움 등을 하면서 얼굴빛을 바꿔 가며 서로 자랑하고 반드시 싸워 이기려고 다투는 것도 저서 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술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노심초사하여 자신의 재주와 힘을 짜내는 것도 막대한 보수를 얻기 위해서이다. 벼슬아치가 자신들에게 내려질 형벌마저 피하지 않고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하고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뇌물을 탐닉하기 때문이다. 농공상인(農工商人)들이 저축하고 이익을 늘리는 것도 부를 구하고 재산을 불리려 하기 때문이다. 지혜와 능력을 다해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남에게 재물을 넘겨주게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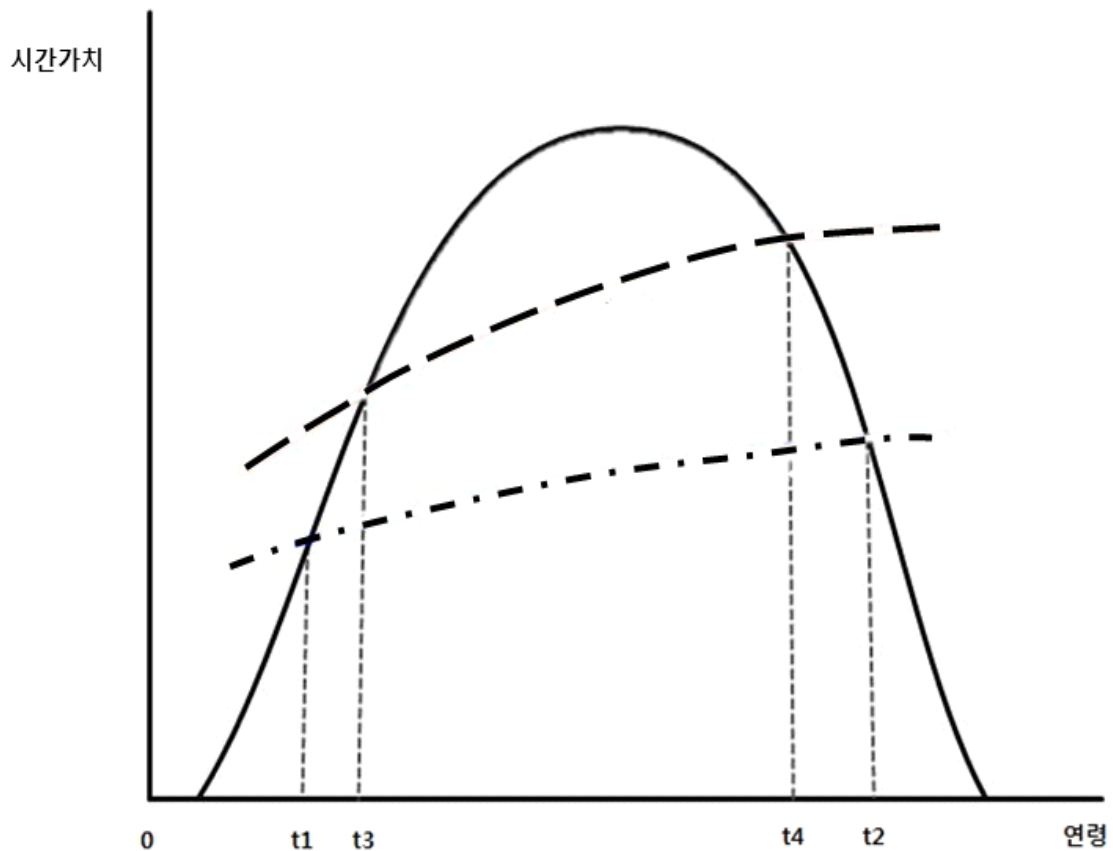
## □ 문 제 □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문제 2】

아래 그림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시간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굵은 실선은 여성이 모든 시간을 가정에 투입하는 경우 창출하는 가치를 의미하고, 긴 파선(---)은 남성의 임금률을, 긴 파선과 점선(-·-·-)은 여성의 임금률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고 전 생애에 걸친 여성의 시간가치를 남성의 시간가치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천하의 일 중에 빈천과 부귀를 가지고 그 높고 낮음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문장뿐이다. 대개 문장을 짓는 것은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고 구름과 안개가 허공에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과 같아서, 눈이 있는 사람은 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가려 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벼슬을 하지 않은 재야의 선비라도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빛을 드리울 수가 있다. 조맹(趙孟)과 같은 권세는 그 세력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가문을 풍요롭게 하기에 어찌 부족하겠는가마는 문장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로써 말한다면 문장은 그 자체로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부귀함으로도 그 가치를 감소시키지 못한다.